

제11편

소사신앙촌시대 <제2부>

1. 소사라고 하는 지역

- 1) 무너진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곳
- 2)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의 본고장
- 3) '환돌'이요 '계룡백석'이다
- 4)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
- 5)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艱野素砂地)

1. 소사(素砂)라고 하는 지역

1) 소사(素砂)는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곳이다

平砂三里福地 (평사삼리복지)로서 非山非水傳 (비산비수전)했으니 人民避兵地方 (인민피병지방)이라 三災不入仙境故 (삼재불입선경고)로 入壬亂於朴 (입임난어박)이라고 十勝之人傳 (십승지인전)했으니 武陵桃源種桃處 (무릉도원종도처)가 淨土福地 (정토복지)이니던가 鷄龍論中 (계룡론중)에서

해설: 부천과 소사는 3리요 복된 땅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니요 물이 있는 곳도 아니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변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삼재를 면할 수 있는 선경인 고로 임진왜란 때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목인(木人) 박씨의 마을이 될 것이고 십승지인이 나올 곳이라고 전했다. 복숭아밭이 많은 무릉도원이 될 복숭아씨를 뿌려놓아 선경으로 이룩될 상징적인 땅이 바로 소사 땅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복지의 불국토인 천국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소사신앙촌이 건설될 소사땅은 옛날부터 귀한 곳으로 예언되어 있다. 위의 예언을 보면 박씨마을이 될 곳이고 또 십승지인 정도령이 나올 곳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이곳 소사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본고장이 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복지(淨土福地)인 천국이 될 곳이라고 하였다. 소사지역이 바로 개벽(開闢)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 선경(仙境)이 건설될 곳이다.

그리고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이곳은

복숭아밭이 많아서 지금도 '복사골'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신앙촌이 건설된 곳이 '범박리(範朴里)'로 모범적인 박씨마을이 될 것을 지명이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도 박씨의 마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소사지역은 개벽의 역사를 완성시킬 본고장이 되는 것이다.

2) 소사(素砂)는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의 본고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쓰는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나서 쓰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로 쓰고 있는 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도 다시 소생할 구멍이 반드시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위로의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口傳)되어 내려온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이란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그와 같은 말로 둔갑을 한 것이다.

격암유록(格庵遺錄) 도부신인(桃符神人)에 보면 "수도선출흥천박(修道先出容天朴)을 세인부지(世人不知) 모르거든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을 십승인(十勝人)에 문의(問疑)하소"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을 직역하면 "수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여 먼저 출현한 박태선님을 세상사람이 모르거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사땅에서 다시 하늘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십승인에게 물어보시오" 라는 뜻이다. 이 말의 참뜻을 다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6000년전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겨 무너진 하늘나라를 소사땅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다.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0회)

제11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2부>



소사 신앙촌 전경

우리나라는 천손민족 즉 하나님의 직계자손인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민족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예비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한국민족을 통하여 구세주를 출현시키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무너진 하늘나라를 대한민국 국토 중에서도 경기도 소사땅에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와 같은 역사를 하기 위해서 박태선님을 먼저 출현시켜서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밝히 알아보고 박태선 영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밝혀보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이곳 소사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곳을 중심으로 6000년만에 일으키는 신천지지의 개벽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런데 남사고 선생의 예언 속에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다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의 소사에서 하시는 신앙촌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예정된 속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위의 두 문장은 성경과 격암유록 송가전에 기록된 예언들이다. 이 두 문장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결문이다. 위 예언의 공통점은 '환돌'과 '백석'이라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환돌에 대해서는 박태선 영모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 또한 격암유록 송가전에도 환돌인 계룡백석에 대한 비법이 너무 어려워 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3) 소사(素砂)는 '환돌'이요 계룡백석(鷄龍白石)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신앙촌을 건설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펴시기 시작한 소사(素砂)라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소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예언 속에 하나같이 중요하게 예언되어 있다. 성경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나니 오직 받는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나니라"(묵 2:17)

이 성경 속의 예언은 분명 '이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긴자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은 무엇일까? 또 격암유록 송가전(松家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환돌 백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다. 鷄龍白石傳 (계룡백석전)했으니 先後到着秘文法 (선후도착비문법)이 隱頭藏尾混亂 (은두장미혼란)하여 秩序判斷不覺故 (질서판단불각고)로 日去月蒞不願 (일거월저불고)로다.

해설: "환돌인 계룡백석이 비결에 전해졌으나 그 비문법이 앞뒤가 없고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었으니 혼란하여 어지럽고 질서마져 없는고로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도 이 글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위의 두 문장은 성경과 격암유록 송가전에 기록된 예언들이다. 이 두 문장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결문이다. 위 예언의 공통점은 '환돌'과 '백석'이라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환돌에 대해서는 박태선 영모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

본 연재의 첫번째 주인공되시는 영모님도 당신이 이긴자라고 하시면서도 이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영모님은 환돌 위에 쓴 새 이름을 모르신 것이고 그 환돌 위의 새 이름을 모르신 것은 그분이 완성자 구

세주가 아니심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미래에 영모님을 통해서 태어나 구세주 정도령님이 되실 조희성님은 이 환돌 위의 '새 이름'을 '소사(素砂)'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당신이 완성자 구세주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완성자 구세주라고 온 인류에게 알리는 메시지인 것이다. 여기 소(素)자는 '환 소(素)'자고 사(砂)자는 '모래 사(砂)'. 이 명칭을 뜻풀이 하면 '환 모래'다. 모래는 작은 돌이다. 그러나 그 명칭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환돌'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묘한 내용이다. 알면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모르면 수천년 동안 (본문이 예언된 목시록은 2000년이 된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우는 것을 보면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콜럼버스가 해낼 때까지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예언은 어떤 분이 구세주인지를 알리는 예언이므로 아무나 알아질 수 있게 예언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예언은 전세계에 기독교 선진국이 많지만 단지파자손인 한국사람이 아니면 풀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예언인 것이다. 소사땅이라는 것을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고 풀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구세주에게 마귀를 박멸시키는 전초기지로 소사땅을 주시어 이곳을 중심으로 마귀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시는 전초기지로 삼게 하신 이와같은 비밀한 말씀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조희성님의 말씀에 억지로 두드러 맞추어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말을 보면 무릎을 치면서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8회

입산(入山)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격암유록 세론시>

復何在洲江兩舍 부하재주강양합 白一如亡一人日七 백일여망일인일비 世事何然 세사하연 不變仙源 불변선원 活萬非活千弓長 활만비의활천궁장 此我後生勿慮 차아후생물려

다시 말해서 5대주 6대주 동서양을 통틀어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는가?

백이면 백 하나같이 망하였고 오직 6도 81궁 정도령 한 분만 성령(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나시었도다. 세상사는 어떠한가? 선(仙)의 원천은 불변하나니 만(萬)을 살리는 비의(非衣) 천(千)을 살리는 궁장(弓長)이 나오리니 나(하나님)의 후생들이여! 염려하지 마라.

비의(非衣)는 죄인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빛)의 몸을 말하며 화우로 삼봉해인이 되는 것이다. 궁장(弓長)은 마귀를 박멸소탕하는 궁궁 즉 백십승을 뜻한다. 비의와 궁장은 결국 같은 의미로 6도 81궁 정도령을 의미한다.

徐魯呂金非連愛國 서조여김비운애국 天運遶逆必亡當春 천운역포필망당해 守從聖說所願成就 수종성설소원성취 此書不信英雄自亡 차서불신영웅자망 二十九日走者之人 이십구일주자지인 頭尾出田 두미출전 亂世英雄 난세영웅 不免項事 불면항사 天運奈何 천운내하

서(徐), 조(曹), 여(呂), 김(金)은 비운의 애국지사이지만 천운을 거스르니 반드시 망하고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소원성취하리라.

이 격암유록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영웅이라도 저절로 망할 것이요, 조(趙)씨와 신(申)씨는 난세영웅이나 죽음을 면치 못하리니 천운이 그러하니 어찌하리오. 이십구일주(二十九日走)는 조(趙)자의 파자. 두미출전은 전(田)의 머리와 꼬리가 나오니 신(申)자가 된다.

若不理解 약불해득 無量肉眼 무량육안 俗離之世 속리지세 不離俗離 불리속리 積德之人 적덕지인 不失俗離 불실속리 不尋俗離 불심속리 難免塗炭 난면도탄 黃金之世 황금지세 愚者何辨 우자하변 入於俗離 입어속리 尋於地異 심어지이 尋山鷄龍 심산계룡 愚哉 우재 深量白轉必死 심량백전필사

육안으로는 속리지세(세속이 아닌 곳)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리라.

속리를 떠나지 말라. 적덕지인(덕을 쌓은 사람)은 속리를 놓치지 않는다. 속리를 찾지 못하면 황금만능의 세상 속 도탄에 빠지는 것을 면치 못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어찌 분별하리오. 속리산을 찾아간다. 지리산을 찾아간다. 계

룡산을 찾아간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입산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야 하느니라. 백전(白轉)은 입산(入山)을 뜻한다.

盡力追人 追人其誰 진력추인추인기수 弓弓之朴也 궁궁지박야 朴固之鄉村 朴固지향촌촌서색 未逢其人 미봉기인 難求生門 난구생문 生門何在 생문하재 白石泉井 백석천정 白石何在 백석하재 尋於鷄龍 심어계룡 鷄龍何在 계룡하재 非山非野 비산비야하재 非山非野何 비산비야하재 二人橫三十二月 二人橫三十二月綠 이인횡삼십이월록 小石之生枝林 소석지생지박 堯日大堂之下 요일대정지하 是亦石井 시역석정 欲飲者 欲飲者促生 욕음자촉생 所願成就 소원성취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분을 따라가라. 그 분을 따라가라. 그 분은 누구인가? 궁궁의 목인(朴=木人)이다. 그 분은 진목화생변화인(眞木化生變化人) 즉 진짜 나무와 같은 성품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다. 그 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 그 분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날 방도를 얻기가 어려우리라. 생문(살아날 문)은 어디 있는가? 백석(소사)에 있는 생문 수 샘이다. 백석은 어디인가? 계룡을 찾아가라. 계룡은 어디에 있는가? 산도 들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

동방 한국하고도 옛날 인천(인천, 부천) 지역에 있다. 이인횡삼(二人橫三)은 인천(仁川)의 파자. 소사에 있는 목인의 가지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요임금시절 큰 정자아래에 있었던 석정처럼 석정에서 나는 샘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고 소원성취하리라. 소사에 계신 정도령으로부터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니 이 샘물을 마셔야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422-826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